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생활이 만행이며 생각이 윤회입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한 걸 보니 개구리 입이 벌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날씨가 따뜻하니까 좋죠? 여러분께서 여지껏 길을 걸어 오셨으니까 오늘은 질문과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법무아인데 윤회하는 까닭

문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법문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윤회사상에 대하여 큰스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인생의 생사변이가 윤회이며, 우주의 물리적 변화가 윤회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변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도윤회의 깊은 도리를 우대한 중생이 믿지 못하므로 옛 조상님들은 경전이 아니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이 아니면 이 말씀을 할 수 없다고 한탄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성암선사는 전발보리심에서 나는 중생과 더불어 수없이 많은 겁 동안 해탈 못하고 생사에 머물며 인간과 천상 사바세계와 피안의 세계에 갖가지 모습으로 출몰하고 부침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스님께 육도윤회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불교의 근본교리는 제법무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법이 무아라면 어찌 윤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 평상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만행'입니다. 만행이 따로 있어서 만행이 아니라 사는 것이 그대로 만행입니다. 끝없이 이어가는 그 행이 만행입니다. 고정됨이 없이 행하는 그 생활이 즉 만행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만행이기 때문에 결국은 육도만행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만행이 있기 때문에 육도윤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기를 '육도윤회에 매이지 말라. 고탈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이지 말라. 내가 보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어 발 하나하나 떨어놓는 것도 바로 윤회거늘, 어찌 그 한발짝 때려 놓고 또 한발짝 때려 때려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치우쳐서 고탈리느냐' 이런 뜻이죠. 끊으라는 말이 아니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윤회에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의 일인데요 시자

스님이 차를 한잔 주는데 뜨거웠어요. 여기 올라오긴 해야겠고 해서 빨리 식으라고 젓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다.' 즉 '네가 차거든 데워 먹고 뜨겁거든 식혀 먹어라. 이게 진법이다.'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항상 육도만행을 하면서 육도윤회를 합니다. 윤회는 생사에 의해서만이 윤회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한참나 할나 돌아가는 것이 윤회입니다. 화해서 나투면서 찰나찰나 변화되면서 돌아가는 이 만행이 즉 '윤회'라는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윤회에 매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차 한잔 마실때 차거든 데워먹고 뜨거우면 식혀먹듯 내 재량껏 하는게 바로 참법입니다"

다. 재차 얘기하지만, '매이지 말라. 고탈리지 말라.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대로 들을 수 있다면 그대로 여여하라. 그대로 뛰어서 넘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것이 바로 육도윤회이며 고정됨이 없이 공했으니 매이지 말고 고탈리지 마라. 이 세상이 다 공했으니라. 너를 세울 것도 없고 너를 세울 것도 없으니라. 안과 밖이 다 그러하니라. 내 몸안에도 생명들의 의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들어 있고, 그래서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내라고 세울 게 없으니 공해라고 한다. 세울 게 없는데 무엇에 매하고 무엇에 고탈릴 게 있느냐? 그러니까 윤회라는 이름조차도 없으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윤회라는 이름은 왜 지어졌느냐.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지 않는다면 질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배우는 사람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이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만행이며,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 윤회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사는 것이 윤회라면 이것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뜨거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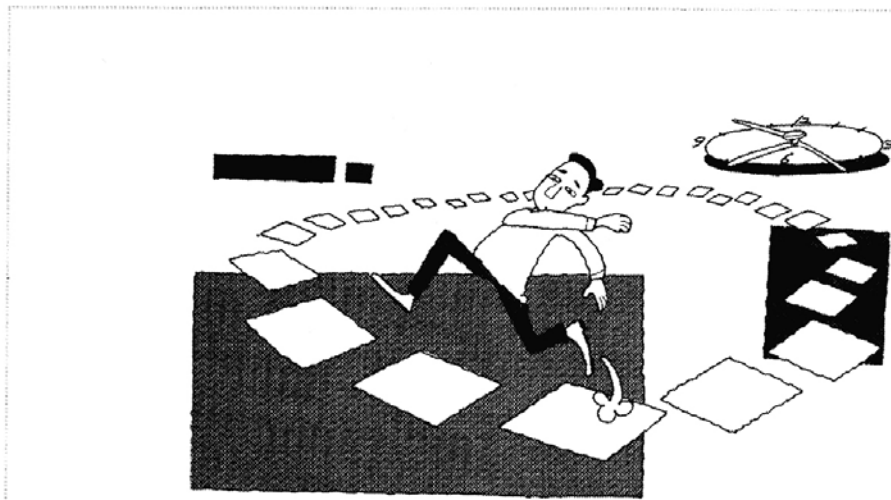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세상이 공해 너도나도 세울게 없어요 생각 붙잡으니 입력돼 악업선업 됩니다

물을 억지로 식히려고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놔두면 그냥 식기도 하고 정히 급하면 찬물에다 띄워서 식혀서 먹으면 되죠. 매사에 일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니 아등바등 애쓰지 말고 내 재량껏 식혀먹고 데워먹고, 또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넉넉히 그냥 놔두면 때가 되면 그냥 먹게 돼요. 급한 것은 식혀서 먹고, 급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먹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또 관습에 의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니 삶이 어지럽고 괴롭고 그렇지, 마음이 넉넉하다면 하늘이 무너지지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괴롭지도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이 두둑이 나고 가루가 된다 해서 불교가 없어도 안 좋았을 판만 아니라, 내가 복잡하게 하나도 없습니다. 좀 더 느긋하게 생각한다면 바다를 삼킬 수 있고, 삼키기만 해도 아니되니깐 토하기도 할 수 있다가 소립니다. 바다를 삼킬

수 있고 바다를 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능히 부처이며 능히 법의 보살이며 능히 어느 보살이 아니 되는 게 없고 어느 중생이 아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 틈에서 부처가 나는 것이지, 우리들을 떠나서 생활을 떠나서 부처님이 있고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상엔 부처님이 삼천년 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불교에 귀의해서 알려고 애쓰는 그분들이 계실으로써 부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법이 무아라고 했는데 어떻게 윤회가 될 수 있느냐고 했죠? 무아라는 뜻은 아세요?

문 이 세상의 모든 법과 자기 자신조차도 없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 제법이라 하면은 일체를 말하고, 무아라고 한다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없는 그 가운데에 나, 즉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아니되고 저게 없어도 아니되고 그냥 딱 차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무아라고 한 것이지, 무아가 없다면 윤회가 어디 있으며, 윤회가 없다면 무아가 어딴디까? 눈이 없는데 귀가 어디 있고 귀가 없는 데 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신이 없어도 생각을 해내지 못해서 목석이니까 무효고, 육체가 없어도 보이지 않으니 무효예요. 다 갖추어서 생김 생김이 잘 생기고 잘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가 올바를 때 그것은 '제법의 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뜻이 모두가 공해서 찰나찰나 나무면서 회해서 돌아가는 이 경지이기 때문에 '제법의 무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없어서 무아가 아니라 우리 몸통이 속에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내세워서 내라고 할 수 없고,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없고, 내가 살림살이를 하고 간다

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아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따지고 본다면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모든 법칙에 의해서는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법이 무아인데 어찌 윤회가 있겠습니까?' 이렇다면 우리 몸속 거리지도 말고 목석이 왜아쥬. 풀도 없고 파도도 없고 흘러가는 것도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넉넉히 흘러가고 움직여주고 자동적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무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스님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지요?

사바세계 출몰한 성암선사

문 네, 성암 선사께서 말씀하신건데요, 나는 중생과 더불어 수없이 많은 겁동안 해탈을 못하고 생사에 머물며 인간과 천상, 사바세계와 피안세계에 갖가지 모습으로 출몰하고 부침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 그 분은 함이 없이 그 말을 하셨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생전에 이 몸 떨어지기 전에 알아차리, 몸 떨어지고 난 뒤에 해탈을 하려면 해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 떨어지면 더 이상 부딪침도 없고 더함도 덜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모든 윤회에 매이지 말고 모든 착을 떠나서 그대로 해라 이겁니다. 지금도 그대로 하고 계신데 생각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고정됨이 없이 공해서 돌아가는 도리를 생활에 실천하시면서도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뭐 하나를 생각하면 꼭 붙들고 늘어지고 이렇게 마음이 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 장난에 고탈리니까 하나하나 생각하는 게 모두 입력이 돼서 바로 그게 악업·선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바세계에서 살면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는 그 어항 속에서 한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피안의 그 언덕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것은, 네 모습이 어떠한 마음은 체가 없으니 넓게 우주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넓게 갖는다면 공기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는데, 왜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냐 애급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못하고 얽매어서 고인 물에서 마냥 해매고 도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지혜롭고 물리가 터져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한 마음이 생겨야 되겠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은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중점을 원하는 중다·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자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을 제작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악인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중다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허공에 코드 꽃고 불 들어오길 기다리라.

해 달라고 하면 벌써 들어 된다. 그렇게 해서 아무런 불이 불을 공덕이 없다. 수만 냥을 내고 불을 켜도 만약 그것이 기복이라면 공덕이 하나도 없고 불을 켜 일도 없다.

내가 농사짓고 부지런히 뛰어서 내 밥을 내가 지어 먹는 것이다. 누가 나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계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지 강퍅 들고 다니면서 도와 달라고 해 보았자 채워지지 않는다. 수억겁을 거쳐 이날까지 나를 끌고 온 주인공의 뜻을 배신하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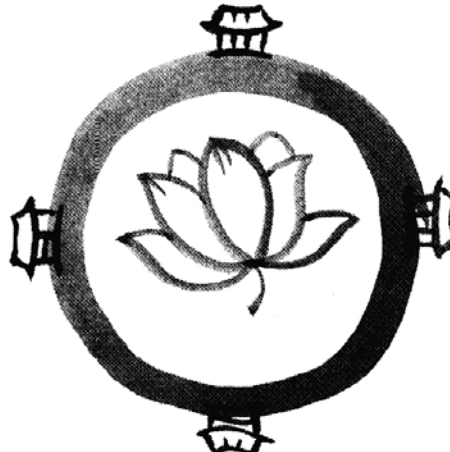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해답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한다. 육신은 의사와 병원에 의지하고, 가난은 남의 도움에 기대어 해결하려 하고, 운명은 사주 관상쟁이에게 물고,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하는 식이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 방편이 될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웃이 날 개라고도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옷이 내 몸이 될 수는 없듯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방패이라도 나 아닌 곳에서 찾은 것은 참 해결책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 자신 속에서 병원을, 의사를, 해결책과 치유책을 찾아야 한다. 밖으로 돌면 무

한한 내면의 해결책을 끌어 내지 못한다. 극락이란 힘겹게 찾아가는 곳이 아니다. 극락이 우리를 찾아오게 해야 한다.

사람들은 여러 것에 의지한다. 부모, 친구, 친척이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돈·권력·명예·학벌·젊음 따위를 믿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밖에 있다. 그러한 것이 도움을 주기도 할 것이지만 가령 의사가 약사처럼 병에 대해서 더 잘 알기도 할 것이나 모를지 밖의 것들에 의지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내면을 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이 주는 것은 언제나 부족하게 마련이다. 남이 불 한바지를 줬으면 그 불을 먹는 동안에 또 불을 피워 할 텐데 남이 준 것만 먹으면 곧 빈 바가지가 된다. 내 깊은 골짜기에서 나오는 샘물을 떠 먹을 수 있으면 항상 든든하고 당당할 것이다.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지 항상 배고프다고 애원하며 남의 집 머슴 노릇만 할 것인가.

관세음 보살! 하고 부르면 벌써 밖으로 모시는 마음이 된다. 그러기에 주인공! 하고 안으로 들어대라 하는 것이다. '주인공이시여! 여여하고 원만해서 삼천大千 세계를 두루 다 비출 수 있고 여여하게 능력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안으로 하라.



기복으로만 맹종하고 타력 신앙으로만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광대 무변한 인간의 가능성을, 법신으로서의 부처 이룰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더할 수 없는 고등 동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저 높은 하늘'이란 어디쯤인가. 복구성이나 삼태성에 사는 생명체들이 보기에는 지구 쪽이 '저 높은 하늘'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이쪽을 보고 '하늘 높은 곳에 하늘이 계시서 우주를 지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여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듯이 말이다.

우주 삼천大千 세계가 내 자리 아닌 곳이 없으니 법당에 있으나 번소에 앉아 있으나 내가 그 곳에 있기에 참 나가 같이 있고 부처님도 함께 계신 것이다. 그럼에도 주인공 자리를 무시하고 밖으로 돌면서 더 좋은 기도처가 없다, 더 좋은 스님은 안계신가.' 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 법당을 자기가 갖고 있고, 그 법당 안에 항상 불이 켜 있고 항상 부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것이다.

허공에 코드를 꽃아 놓고 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려느냐? 타외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도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들고

나고 하지 않는가. 참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도 스스로 모른다 하니까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내 몸에 불은 불부터 꺼야 부모의 목은 빛도 깔고 뿌려놓은 자식들도 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도리를 공부할 생각이 없고 기복으로 돌아 귀신 놀음이나 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 자신만 귀신이 되고 말면 좋겠는데 자식들까지 귀신 노릇을 하게 하니 딱한 일이다. 이곳 저곳 장소 따지고 이종교 저종교 이름 가리고 한다면 전체가 들어 안된 도리를 어떻게 감동할 수 있겠는가. 이 신 저 신 찾다가는 이 신, 저 신, 내 신까지 잃어버린다.

중요한 이름이다. 한 지붕 밑에 사는 사람들이 각각의 살림살이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 놓는 것뿐이니 종교를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다. 인간들이 제각각 마음먹기를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것일 뿐 하늘님이 싸우라고 시킨 것도, 예수가 싸우라고 시킨 것도 아니다. 부처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알라신이 그렇게 시켰을 리도 없다. 인간들이 그렇게 해 놓고 공연히 하늘님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뿐이다.

법찬: 주인공